S 칼텍스



뉴스홈 | **최신기사** 

## 국방위, 北핵실험 대책 추궁

송고시간 I 2009-05-25 21:04









안용수 기자 기자페이지

<국방위, 北핵실험 대책 추궁>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장하나 기자 = 국회 국방위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출 석시킨 가운데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위원들은 이번 핵실험의 성공 여부와 이에 따른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을 따져 묻고, 핵 억지를 위한 전시작전권 환 수 시기 연기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 등을 촉구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에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적 실험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국제관례는 핵실험에 성공했다면 핵보 유국으로 인정하는데 굳이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번에는 실험 규모도 지난번보다 큰데 성공적인 핵실험으로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남의 초상 중에 이런 도발행위를 하는 것 이 말이 되느냐"며 "북한이 핵실험을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해도 되는데도 실험을 한 의도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조사해야 하 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6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며 "PSI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고, 대북한 자산 동결을 비롯한 유엔 차원의 강력 한 대북제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해야하지만 한미 핵우산 강화를 통해 신뢰를 구 축하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핵실험에 함의된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 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는 부분적 성과로서 나중에 평가를 했다"며 "이번에도 핵실 험을 한 징후는 분명하고 위치도 대략 식별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 다는 가정 속에서 군사대비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학송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 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aayyss@yna.co.kr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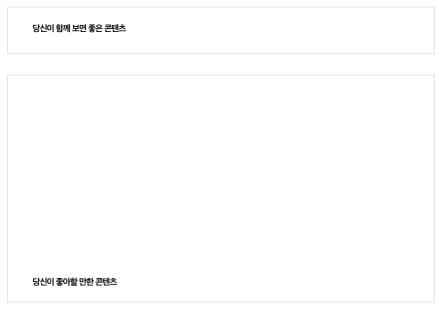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현장 영상 →

▶ 02:22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We Do Technology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압뉴스











sns **f**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